

해종매제 기고 중단 스님 종무지침위반 여부 가린다

대책위, 자료집 발간 작업도 진행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회가 해종매제에 글을 기고한 종단 소속 스님에 대해 종무지침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해종언론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종단의 종무지침을 위반하는 스님과 단체에 대한 논의를 벌여 우선적으로 종무지침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중앙총회가 “예곡·편향보도로 종단과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고 있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 웹블, 악성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며, 종단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결의함에 따라 구성된 대응기구다. 대책위는 이후 △취재지원 중단 및 출입금지 △광고 및 개별후원 중단 △보도자료 배포 및 기고, 간담회 인터뷰 금지 등을 종단 관련기관 및 사찰에 종무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다.

종무지침 위반 여부를 가릴 대상은 최근 해종매체에 글이 실린 A스님과 B스님 등 일부 스님과 관련 재가단체 관계자 등이다. 대응수준은 우선적으로 확인작업을 진행한 뒤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종무지침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징계회 부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해종언론 관련 자료집 발간을 위한 검토 작업도 진행했다. 대책위는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기초자료를 검토했으며, 수정보완한 뒤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동국대 감사후보 주경·원정스님 총회 동의 거쳐 이사회서 선임

오는 6월30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 감사 제정스님의 후임에 주경스님과 원정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교회의실에서 제204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감사 후보로 두 스님을 추천했다. 감사후보는 중앙총회의 추천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주경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한 뒤 서산 부석사 주지, 제14·15대 중앙총회의 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중앙총회의 원, 불교신문사 사장 등을 맡고 있다. 원정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봉암사 능엄학림 등에서 수학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련안거했다.

한편 이번 동국대 감사후보 추천에 따라 지난해 12월 동국대 이사회에서 모든 임원이 사퇴기로 한 결의는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스님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되게 됐다. 성타스님은 차기 이사장을 선출한 뒤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봉영 기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연임 사실상 확정

제26대 회장 ‘단독 임후보’ 6월30일 대의원총회서 추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26대 중앙신도회장 후보 등록기간 동안 단독 임후보한 현 제25대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의 후보 등록을 지난 10일자로 확정 공고했다.

이 후보는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 2009년 중앙신도회 부회장, 수석부회장에 이어 2012년 제25대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4년간 중앙신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신도회가 중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창립 60주년과 동시에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조직을 모두 완성하는 등 신도조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오는 3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의원

단과 함께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임기시작과 함께 시행된 행복비라미 문화대축전은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 프

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총회를 열어 이기흥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기흥 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추대된다면 앞으로의 4년은 신도 조직화와 행복비라미 축전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을完연히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가 명실상부하게 전국 불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아울러 “인재발굴과 육성에도 힘써 한국불교의 역량을 확대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법당 신축 불사에 군종교구와 군법사들이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전국 군법당과 군법사 등이 실시한 것으로 모은 기금 2억원 전달식.

“군법사들이 부지런히 모은 기금이라 더 의미”

군종교구·군법당 및 군법사 홍법문화재단 여래사 구룡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법당 신축기금 5억원 출원

공동경비구역(JSA)에 들어서는 군법당 신축 공사에 군포교 원력을 담은 스님과 불자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홍법문화재단과 일산 여래사, 서울 구룡사는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승스님, 조계종총무원장)에 ‘공동경비구역(JSA) 군법당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도 2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특히 이날은 전국 군법당과 군법사 등이 실시한만으로 모은 기금 2억원을 출원해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군법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부지런히 모은 기금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쉽지 않을 텐데도 어렵고 힘들게 지원금을 모아준 만큼 군종교구도 원력을 갖고 범당 불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은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스님과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정우스님은 “전국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불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군법당과 군법사를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김강영 국방부 군증정재과장은 “매년 16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공동경비구역에 법당이 세워지면 방문객들이 법당에서 통일을 발원하고 더불어 한국의 전통문화도 함께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국의 군법당

과 군법사들이 JSA 신축 법당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한 JSA 법당 불사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경기도 파주 군내면 JSA 안보견학 교육장 옆 82.32㎡(24.9평) 부지에 건립되며 고려시대 건축양식을 반영, 무량수전 양식으로 지어진다.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국기 및 순국선열들의 위패도 함께 봉안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린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포교사·국제포교사 자격갱신·복권 접수

조계종 포교원은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자격 갱신 및 복권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공고했다. 일반포교사 자격 갱신은 2016년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비납부와 연수 참석, 팀·개인 활동보고서 제출, 팀 소속 여부, 신도교부금 및 갱신비 납부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복권은 제적 징계를 받은 뒤 5년이 경과하거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1년

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포교사 자격복권은 제적징계를 받은 뒤 2년이 경과하거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 갱신과 복권 희망자는 오는 7월15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포교사단 각 지역단 사무국이나 국제포교사회 사무국으로 신청 가능하다. 포교원은 오는 8월 포교원회의를 통해 자격 갱신과 복권 가부를 결정한다. 자격 갱신자와 복권자는 오는 9월24일과 25일 이들 동안 범주사에서 열리는 팔계계 수계산림과 연수를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박인탁 기자

‘출가자 감소’ 해법 찾기 현황파악 후 방향 모색

출가제도개선특위 첫 회의 개최

조계종단의 사회적 역량 확대와 출가자 감소 현상을 보완할 은퇴자 특수출가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중앙총회 출가제도 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는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교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현황 출가제도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개선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무원장 지승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은퇴자 특수출가의 제도화 논의도 본격화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열린 제205회 임시회에서 “최근 10년간 출가자의 감소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어 종단의 출가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성된 지 3개월만에 열려 논의를 모았다. 중앙총회는 특히 구성을 통해 향후 출가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출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출가제도개선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 귀종승제도 등 다양한 출가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교육원의 현황보고를 받은 뒤 향후 활동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간사에 우봉스님(서울 호암사 주지)을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동국대 종학연구소·국제선센터 7일간의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스님)와 국제선센터(센터장 수불스님)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동국대 서울 캠퍼스와 인제 백담사 등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간화선 마음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학자 7명을 비롯해 프랑스의 마틴 바첼라, 일본의 이시이 슈도, 미국의 지미 유, 중국의 서문명, 이사룡, 이해도 등 저명한 국외학자들이 참여해 간화선 관련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다. 뿐만 아니라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의 간화선법과 수불스님의 간화선법 그리고 일본 임제종의 야스나가 소도 스님으로부터 일본 간화선 수행법에 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지난 대화와 마찬가지로 국외 학자와 외국인들 약 40여 명이 백담사에서 5박6일간 간화선을 실천하고,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과 문경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을 만나 법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종학연구소장 종호스님은 “간화선 이론의 교학적 연구는 물론 국외의 학자와 수행자들에게 실제적인 간화선 수행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제42회 삼보불교아카데미 개강

‘부처님, 사부대중에게 말을 걸다’

지성불교의 산실로 불교 대중화와 정법포교를 선도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가 제42회 삼보불교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법회기간_ 2016년 7월 3일 - 8월 28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총9주간)
동참비_ 3만원(2개월)
장소_ 삼보정사(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08 서경대학 앞)
전화_ 02)913-2859, 02)943-2858
홈페이지_ www.sambobuddha.org

부설 삼보정사, 삼보법회,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삼보연꽃어린이집, 삼보선원, 삼보법사회

불기2560(2016)년 6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 삼보법회



날 짜	법 사	주 제
7월 3일	종호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나랑 얘기 좀 하자
10일	최종석 교수 금강대학교 대학원장 금강대학교 응용불교학 교수	걱정없이 살라
17일	철오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경남 사천 구룡사 주지	현대 사회와 수행
24일	김성철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뇌과학과 불교
31일	수경 스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	고봉선사의 선요를 말하다
8월 7일	일진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행복하십시오
14일	이인자 교수 승만서원실천회 회장 불교여성개발원 초대원장	불자들에게 있어서 승만10대 서목의 의미
21일	종범 스님 삼보불교아카데미 학장 중앙승가대학교 제4대 총장	희향법문
28일	정병조 교수 삼보사이버불교대학 학장 불교학연구회 회장 금강대학교 제4대 총장	한국불교의 세계화